개점 15주년 맞는 광주신세계 이 장 환 대표이사

"지역 中企와 함께 산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하는 광주신세계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상품 전국에 소개"

개점 15주년(8월25일)을 맞는 '광주신세계의 수장' 이장환 대표이사는 24일 "지역 기업으로서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친화경영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역에 기반을 둔 대표 유통업체로서 지역내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교두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다짐이다.

이 대표는 "지역 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우수 상품들을 신세계 유통라인을 통해 전국에 소개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품질이 뛰어난 지역 상품들이 많지만 디자인, 홍보 등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마케팅 노하우가 부족해 전국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품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95년 개점 이후 지역상품 판로확대, 사회봉사, 문화예술지원, 장학금 지급 등 4대 지역친화 사업을 통해 지역과 끊임없는 교감을 이뤄내면서 우량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오감만족 백화점으로"

부산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신세계 센텀시티점을 광주신세계의 성장 동력 모델로 삼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유스퀘어 문화관과 연계한 복합문화쇼핑타운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주신세계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형 백화점'으로 만들고 지역민의 자부심이 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환경경영에 역점을 둔 윤리경영을 실천해 지역 유통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들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 /나명주기자 mjna@

꾸준한 지역밀착 경영…유통·문화 사업 선도

오늘 기념콘서트 등 축하 이벤트·문화공연 다채

25일 개점 15주년을 맞은 광주신세계는 꾸준하게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등 지역 유통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95년 광주법인 설립 이후 2002년에는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 2006년 이마트와 패션스트리트 개장, 2009년 인근 유스퀘어와 연계한 생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복합 레저·쇼핑타운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연간 6억원이 넘는 사회공헌기금을 각종 단체에 지원하고 자율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지난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지역경제 공헌 관련 지식경제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우수한 경영실적을 인정받아 지난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에 '아시아 200대 중소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광주신세계는 개점 15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1층 광장에서 15주년 기념 대형 떡을 전시한 뒤 선착순 150명에게 떡을 증정하며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5·18기념재단 문화홀에서는 가수 '바비킴'과 'JK김동욱'을 초청, 15주년 기념 콘서트도 열린다.

다트게임, 중량 맞추기, 탑 쌓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곳곳에서 진행되며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마트 2층 플레이타임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

26일 오후 1시부터는 9층 다목적홀에서는 KBS 프로그램 '비타민'에 출연 중인 권오중 의학박사가 '건강과 비타민'이라는 주제로 한 무료특강이 열리며 1층 갤러리에서는 김선두, 송필용 등 남도 대표작가 25명이 남도의 전통술을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린다.

이어 26일 오후 3시부터는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바리톤 '김동규 초대 공연'도 선보인다.

/이은미기자 emlee@

지역 백화점 '추석 알바생' 뽑는다

롯데 광주점 등 300여명…작년보다 최고 33% 늘어

올 추석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업계가 선물 포장과 배송 작업에 투입할 아르바이트 인력을 작년보다 더 뽑는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아르바이트 모집을 시작했으며 추석 연휴까지 상담, 배송, 포장 등을 맡을 인력 150명을 뽑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추석 선물세트 행사 기간인 9월 6~21일 상담과 배송, 상품권 포장을 맡을 인력을 100~120여명을 뽑기로 하고 30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40~50명의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며 31일부터 모집한다.

업체별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규모는 작년 추석 때에 비해 많게는 14~33%씩 늘어난 것이다.

백화점업계가 아르바이트 인력을 늘리기로 한 것은 점포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로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도 작년 추석 때보다 13~28%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다.

이마트는 30일부터 2300명, 홈플러스는 3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500명, 롯데마트는 내달 1일부터 860명을 모집한다.

급여는 업체와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시급 기준으로 4500~5500원이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우대금리·수수료 면제

光銀 추석 특별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추석을 맞아 우대금리제공·수수료 면제·현금보관 서비스·경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고객 사은행사를 연다.

이달 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정기예금·적금, 대출, 수익증권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각각 30명에게 10만원, 40명에게 5만원 등 총 5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한다.

9월15일부터 20일까지 광주은행 창구에서 부모에게 100만원 미만을 타행송금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귀중품을 보관하는 대여금고도 9월15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다음달 15일""부터 30일까지 플러스다모아적금이나 KJB여니수니적금에 신규 가입하는 만 20세 미만 고객들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LG전자가 24일 4도어 타입 2011년형 'LG 디오스 김치냉장고 쿼드(Quad)'를 선보였다. 다음주 출시예정인 이 제품은 양문형 도어를 채택, 아랫부분에 2개의 서랍 구조 형태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시중 판매 계란 상당수 저급품

소비자시민모임 검사…42.8% 최하위 등급

시중에서 판매되는 계란의 상당수가 저급한 품질의 계란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단체가 시중 유통점 12곳에서 판매하는 35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 최하위 등급이 15개로 42.8%에 달했다.

이번 검사는 농림식품부에서 고시한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검사 결과는 지난해 실시한 시판 계란의 품질검사 결과 40.6%가 최하위 품질등급이었던 것보다 더 악화된 것이다.

특히 계란의 신선도 검사 결과 '불량' 등급 제품이 6개, 17.1%에 달해 시판 계란의 품질 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는 계란의 품질 등급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계란을 구입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주유기 오차 전국서 가장 낮아

20ℓ당 -5.6㎖…대구 -37.9㎖로 오차율 최고

광주지역 주유기 오차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한국석유관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합동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538개 주유소 1066개 주유기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주는 주유기의 평균 오차가 20ℓ 당 -5.6㎖로 전국 평균(-23.4㎖)을 크게 밑돌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는 20ℓ 를 기준으로 5.6㎖가 덜 주유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무안-광주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의 경우 20ℓ 주유시 오히려 4㎖를 더 주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속도로 주유소(-22㎖)와 일반도로 주유소(-24㎖)간의 차이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주유기 평균 오차는 -26.6㎖로 조사됐다. 전국의 경우 주유기의 평균 오차는 20ℓ 당 -23.4㎖로 지난해의 평균 주유오차(-55.3㎖)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광주와 함께 울산(-7.3㎖), 대전(-8.0㎖), 서울(-9.8㎖) 등이 평균오차가 낮은 지역으로 꼽혔으며 대구(-37.9㎖), 제주(-36.6㎖), 인전(-34.8㎖) 등은 오차가 큰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